

# 韓國의 殉葬研究에 대한 檢討

金 宰 賢\*

— 목 차 —	
I. 序 論	IV. 殉葬研究에 대한 檢討
II. 殉葬에 관한 研究史	V. 結 論
III. 人骨所見에 대한 檢討	참고문헌

## I. 序 論

필자는 한국 동해시 추암동고분군의 매장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확인된 복수개체의 인골매장에 사용되어온 용어의 불비한 점과 지금까지 殉葬으로 생각되어온 많은 예가 追葬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殉葬은

Tab. 1 埋葬例의 分類(筆者作成)



\* 九州大學 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基層構造講座 助手

複數埋葬이 확인되는 單槨墓에서 매장된 주인의 사망시에 희생으로써 殉殺되어 부장된 同時埋葬(單次葬)의 경우로 보았다. (金宰賢 1994, 10, 1994, 12) 그러나 追葬과 구분되어지는 一墳多槨墓의 경우에도 그것이 매장된 주인(중심주체: 主槨)을 중심으로 殉殺되어진 同時埋葬의 경우라면 역시 殉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Tab. 1)

이와같은 定義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한국의 殉葬에 대한 研究史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의문점, 그리고 人骨所見에서 제기되는 의문점을 지적하여, 고분에서 나타나는 殉葬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殉葬에 관한 내용은 해당 발굴보고서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가능성으로 제시된 것은 제외하고 殉葬이 테마가 된 논문만을 다루기로 한다. 그것은 殉葬에 관한 연구에서 이 대부분의 보고서 자료들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 II. 殉葬에 관한 研究史

한국의 殉葬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북한의 김용간·황기덕의 논문이다. 여기서 論者は 청동기시대를 노예제사회로 구분하고, 그 증거로서 청동기시대의 강상묘와 같은 多槨墓를 殉葬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같은 殉葬의 예는 봉건시대로 구분되는 삼국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소멸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梁山夫婦塚에서 殉葬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라가 국가형성에 있어 문화발전이 가장 늦었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용간의 1967) 이것에 관한 문제점의 지적은 權五榮의 연구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므로<sup>1)</sup> 여기서는 생략하더라도, 북한의 殉葬에 관한 연구목적은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일찍 殉葬이 없어진 선진국가임을 결론지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리고 金貞培의 殉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殉葬에 관한 문헌을 기술하고, 당시 梁山夫婦塚의 경우에서 살펴지는 문헌과의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金貞培 1969) 이것은 당시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문헌의 殉葬內容과 비교·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氏의 연구이후, 한국의 殉葬에 관한 연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1976년에서 1981년까지 조사된 高靈池山洞古墳群의 발굴성과를 중심으로한 金鍾徹의 殉葬에 대

1) 權五榮 丁. 1991. 「岡上墓殉葬制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회』 21, P. 9~17.

2) 1993. 「강상묘와 고조선사회」 『考古歷史學志』 9, pp. 257~277

한 연구가 나왔다. 氏는 하나의 봉토속에 배치된 數基의 多槨墳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검출된 인골자료에 관한 결과와 분묘의 상태, 유구의 배치등에서 殉葬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殉葬에 대한 예로써 의성탑리, 황남동98호남분, 양산부부총, 동래북천동고분 등을 들었다. 즉 氏는 多槨墓에서 殉葬의 존재를 확인하여 신라·가야지역에서 성행한 殉葬風習에 대해서 백제·고구려 묘제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金鍾徹 1984)

다음으로는 발해에서 인골이 출토된 고분을 중심으로 이른바 「多人葬」의 성격을 살피고 渤海의 殉葬論을 제기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 宋基豪는 발해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분의 複數埋藏에서<sup>2)</sup> 「同時性」·「從屬性」·「같은 고분내의 매장」이라는 殉葬의 3요건에 의해 정리하여, 발해의 복수매장을 家族葬이 아닌 殉葬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殉葬墓의 主被葬者는 고구려이래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가면서 발해에도 그대로 편입되었던 수령층으로 파악하였다. (宋基豪 1984)

다음으로는 殉葬에 대하여 「同時性」과 「強制性」을 중시하고, 殉葬의 사상적 배경과 발전·변질, 그리고 殉葬의 성격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다. 여기서 朱容立은 문헌에서의 殉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황남동98호남분, 고령지산동34호·35호분, 양산부부총, 김해예안리고분, 북천동고분등을 殉葬例로 하여, 殉葬의 시기를 4~6세기로 보았다. 그리고 氏는 殉葬을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대국가로 접어들면서는 점차 형식화되고 변질되어 토우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朱容立 1988)

이에 대해 「同時性」, 「強制性」, 「從屬性」을 殉葬의 필요조건으로 하는 연구가 있다. 여기서 權五榮은 고조선사회의 殉葬事實에 대한 가능성은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강상묘·누상묘·와룡천등에 관해서는 氏가 들고 있는 3가지 필요조건에 불부합됨을 들어 殉葬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삼국에 관한 내용에서는 이제까지의 殉葬研究들에서처럼 殉葬과 관련되는 문헌과 함께 고고학적 자료를 주로 한 殉葬例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백제의 경우에는 석촌동3호분, 신라의 경우에는 황남동98호남분, 경주월성로고분, 영덕피시동고분, 경산임당지역고분군, 의성탑리고분, 양산부부총, 창녕계남리고분, 가야의 경우 김해대성동고분군, 부산북천동고분군, 합천옥전고분군, 고령지산동고분군, 고령분관동고분군, 성주성산동고분군, 함안말산리·도항리고분군 등을 殉葬例로 들고 있다. (權五榮 1992)

2) 宋基豪의 「多人葬」이라는 용어와 상통한다.

한국에서의 殉葬에 관한 연구는 문헌을 근거로 하여 이제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를 이용하여 殉葬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殉葬의 例로써 사용되어지고 있는 자료 중, 출토된 인골에 대한 소견에서 의문되는 점을 살피고, 다음으로는 이들 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재 殉葬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 Ⅲ. 人骨所見에 대한 檢討

다음은 殉葬의 例로서 사용되어지는 고분들 중에서 출토된 人骨所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물론 현 시점에서 이미 보고된 인골에 대하여 필자가 재검토하지는 못하였으나 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조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는 보고서에 쓰여진 人骨所見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 의문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제 人骨報告에서 관찰은 되었으나 아직 報告書에 실지 못하여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일부 人骨所見에서는 다소의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재조사될 수 없는 실정의 인골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 여기서는 보고된 사실에 준하는 것을 먼저 밝혀 둔다.

#### 1. 황남동98호남분출토 인골소견의 경우

殉葬의 人骨所見으로서 먼저 황남동98호남분에 대한 결과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張信堯는 검출된 인골이 2체인 것과 그 중 1체는 15세전후 여성이고 나머지 1체는 60세전후의 남성으로 판정하고 있다. (張信堯外 1976) 그런데 여기서 처음 1의 경우 연령에서 15세전후로 판정한 이유는 大腿骨頭가 骨端軟骨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점이다.<sup>3)</sup> 그러나 大腿骨頭는 보고서의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sup>4)</sup> 骨頭와 骨體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骨端의 骨化段階를 보이고 있어 그 연령은 15세에서 20세의 폭을 가진다.<sup>5)</sup> 그리고 2의 경우에서도 冠狀縫合의 일부 外面은 屈曲線이 남아 있으나 內面이 완전융합된 것에 근거하여

3) 張信堯·金奎澤 1976, 「慶州第98號古墳南墳에서 出土한 古人骨에 관한 研究」 『文化財』 10, 文化財管理局, p. 93.

4) 註3의 p. 98, Fig. 1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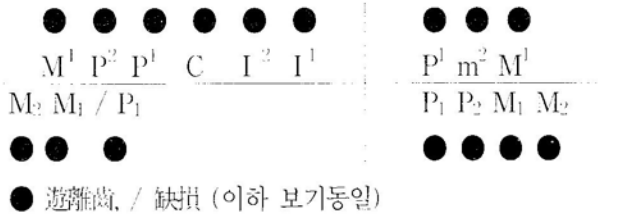
5) D. R. Brothwell, 1963, 'Digging up Bones', pp. 64~67.

Tim D.White 1991, 'Human Osteology', p.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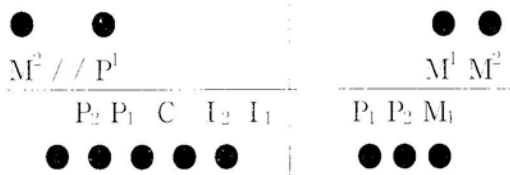
60세전후로 판단하고 있다.<sup>6)</sup> 물론 縫合線의 開閉는 다소 개인차가 크게 작용되어지는 부위임을 감안하더라도<sup>7)</sup> 여기서 연령판정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진 冠狀縫合은 그 癒合이 20세초반에서 30세후반에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sup>8)</sup> 더우기 內板과 外板 중 內板의 閉鎖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sup>9)</sup> 60세 전후라는 연령의 근거는 될 수 없다. 혹 齒牙의 咬耗度가 그 근거였다면 고찰에서 분명히 밝혔어야 할 것이다.<sup>10)</sup>

그리고 보고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골은 수습된 것이여서 다만 한국인 성년남성과 성년여성의 계측치를 비교하여 그 수치가 작은 것에서 60세 노년의 인골이 아닌 15세전후 여성인골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또 遊離齒에서 확인되는 2體分の 齒式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齒牙의 咬耗度는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다.<sup>11)</sup>

1) 15세전후여성의 齒式



2) 60세전후 남성의 齒式



6) 註3의 p. 93.

7) 黒田直 1976, 11, 「頭蓋冠縫合癒度と年齢」, 『科學警察研究報告書』, 29-4, pp. 39~42.

8) 池田次郎 1975, 「高松塚被葬者の推定年齢について - 鳥鑑定と梅原説の検討 -」, 『季刊人類學』, 6-1, pp. 85~86.

9) 小片重男外 1961, 「日本人頭蓋縫合の變化と年齢との關係」, 『日本法醫學雜誌』, 15-5,6, pp. 396~397.

10) 註3의 pp. 92~93, 齒牙와 考察에서는 「磨耗가 심한점」이라고만 하고 있다.

11) 「磨耗」라고 표현한 것이 「咬耗」로 추정되는 데 15세전후여성의 것으로 추정된 齒牙에서도 「磨耗가 적으며」라고만 하고 있다.

Tab. 2 황남동98호남분 여성치아계측치  
(張信堯의 1976에서 改變)  
Measurements of teeth from  
the young girl(mm)

Dental No.	Dimension	The remain	Korean adult male	Korean adult female
11	L	10.7	11.6	10.8
	W	● 8.6	8.6	8.3
	T	◎ 7.8	7.5	7.1
12	L	◎ 10.3	9.9	9.5
	W	● 7.1	7.2	7.0
	T	◎ 6.9	6.7	6.4
13	L	◎ 12.0	10.8	10.0
	W	● 7.7	8.1	7.7
	T	◎ 8.7	8.6	8.0
14	L	◎ 8.9	8.3	7.9
	W	● 7.2	7.6	7.4
	T	◎ 9.9	9.8	9.6
15	L	● 7.5	7.8	7.5
	W	● 6.7	7.1	7.1
	T	◎ 9.9	9.5	9.2
16	L	◎ 7.8	7.2	7.1
	W	◎ 10.7	10.6	10.1
	T	◎ 12.2	11.8	11.2
24	L	● 8.3	8.3	7.9
	W	● 7.6	7.6	7.4
	T	● 9.8	9.8	9.6
65	L	● 8.0	7.2	7.1
	W	● 10.4	10.6	10.1
	T	◎ 12.1	11.8	11.2
34	L	● 8.3	8.3	8.1
	W	● 7.2	7.2	7.2
	T	● 8.0	8.0	7.8
35	L	● 7.8	7.8	7.3
	W	● 7.2	7.4	7.2
	T	● 8.4	8.6	8.3
36	L	● 7.3	7.3	6.9
	W	◎ 11.6	11.5	11.2
	T	◎ 11.4	11.0	10.5
37	L	● 7.1	7.1	6.8
	W	● 11.2	11.3	10.9
	T	● 10.5	10.7	10.2
44	L	● 7.9	8.3	8.1
	W	● 7.0	7.2	7.2
	T	● 7.7	8.0	7.8
46	L	● 7.2	7.3	6.9
	W	◎ 11.6	11.5	11.2
	T	● 11.0	11.0	10.5
47	L	● 7.1	7.1	6.8
	W	◎ 11.3	11.3	10.9
	T	● 10.3	10.7	10.2

※ L, length; W, width; T, thickness

Tab. 3 황남동98호남분 남성치아계측치  
(張信堯의 1976에서 改變)  
Measurements of teeth from  
aged man(mm)

Dental No.	Dimension	The remain	Korean adult male	Korean adult female
14	L	● 8.3	8.3	7.9
	W	● 6.5	7.6	7.4
	T	● 8.1	9.8	9.6
17	L	● 7.3	7.3	7.2
	W	◎ 10.9	10.1	9.8
	T	◎ 11.5	11.8	11.3
26	L	● 7.2	7.2	7.1
	W	◎ 13.0	10.6	10.1
	T	◎ 12.3	11.8	11.2
27	L	● 7.3	7.3	7.2
	W	● 10.1	10.1	9.8
	T	● 11.8	11.8	11.3
34	L	● 8.3	8.3	8.1
	W	● 7.0	7.2	7.2
	T	● 7.8	8.0	7.8
35	L	● 7.8	7.8	7.3
	W	● 7.3	7.4	7.2
	T	● 8.1	8.6	8.3
36	L	● 7.3	7.3	6.9
	W	◎ 12.9	11.5	11.2
	T	● 11.0	11.0	10.5
41	L	● 8.4	8.4	8.7
	W	● 5.6	5.6	5.6
	T	● 5.9	5.9	5.9
42	L	● 9.0	9.0	9.0
	W	● 6.1	6.1	6.0
	T	● 6.3	6.3	6.2
43	L	◎ 10.7	10.2	10.0
	W	● 6.9	7.2	6.9
	T	◎ 8.0	7.9	7.6
44	L	● 8.3	8.3	8.1
	W	● 7.0	7.2	7.2
	T	● 7.8	8.0	7.8
45	L	● 7.8	7.8	7.3
	W	◎ 7.5	7.4	7.2
	T	◎ 8.2	8.6	8.3

여기서 齒式1)의 경우 확인되어지는 晚期殘存乳齒의 예는 遊離齒인 점에서 정확한 치아상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12) 그리고 Tab.2에서 보는 것처럼 女性齒牙計測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측치의 전체 34포인트 중 성인여성보다 높은 것 (●으로 표시)이 26포인트, 더우기 성인남성보다 높은 것이 17포인트(◎으

12) 遊離齒 m<sup>2</sup>를 晚期殘存乳齒라고 한다면 거의 같은 예는 성년의 단계에서도 보이고 있으므로 오히려 맹출된 M<sub>2</sub>의 에나멜질 교모상태가 어떠한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로 표시)인 점에도 불구하고 女性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 물론 보고자는 「두사람이 모두 현대 우리나라 남여 성인성적보다 큰점이 草食으로 인한 고대인의 강한 치아 발육을 의미하는 것」으로<sup>13)</sup> 추정하고 있으나, 고대인의 草食에 의한 강한 치아발육이 증명된 연구는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Tab.3에서처럼 60세 남성의 경우 계측치 18포인트중 성년남성보다 계측치가 큰것은 다만 7포인트(●로 표시)만인 것에서 「두사람이 모두」라고 한 점에 대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殉葬의 이미지에 강하게 부합될 것같은 15세전후의 여성과 60세전후의 남성은 그 추정에 있어 얼마간의 의문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 2. 지산동44호분·45호분출토 인골소건의 경우

44호분에서는 3호, 5호, 9호, 11호, 13호, 15호, 19호, 20호, 21호, 22호, 24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2호석곽에서, 그리고 45호분에서는 2호석곽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朱剛1979) 그런데 그 중 30대전반의 남자와 30대후반의 여성이 합장된 것으로 보고있는 44호분 13호석곽의 경우, 두 골편 1개와 장골편 2개에서 연령을 30대후반으로 본 것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으나 왜 성별이 女性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sup>14)</sup> 또 21호석곽에서는 9~10세경의 여자인골 2체로, 28호석곽에서는 30대전반의 남성과 8세경의 여자로 추정하였다.<sup>15)</sup> 그런데 그 중 9~10세의 女子人骨 2체와 8세의 女子人骨 1체에서 연령이 인류학에서 말하는 小兒에 해당되어<sup>16)</sup> 性別判定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 이상,<sup>17)</sup> 어떻게 女性으로 판정하였는지 궁금하다. 즉 眉弓의 발달이 미미해서 女性으로 추정한 것에서는<sup>18)</sup> 그 발달이 미미한 이유가 여성이라서가 아

13) 註3의 p. 93. 考察부분

14) 朱剛 1979, 「池山海日號, 45號古墳 出土人骨에 대한 所見」 『大加郡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p. 330.

15) 註14의 p. 331, p. 333.

16) 연령은 대개 乳兒(1세미만), 幼兒(만1~5세), 小兒(6~11세), 若年(12~19세), 成年(20~40세), 熟年(40~60세), 老年(60세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17) 여기에 대해서는

① WILLAM M.Bass 1987, 『Human Osteology』 p. 19.

② 西方 一郎 1988, 『現代人の法醫學』 p. 357.

③ 小片保 1973, 「人骨の研究法」 『考古學ジャーナル』 4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은 예는

④ 金鐘品の 1985, 「金海郡安里古墳群出土人骨(I)」 『金海郡安里古墳群I』에서도 확인된다.

나라 小兒인 관계로 생각되며, 또 小兒의 경우는 남·여성 모두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女性으로 추정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頭頂隆起가 심한 것에서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에서는<sup>19)</sup> 頭頂隆起가 성별판정의 부위인지 묻고 싶다.

### 3. 월성로출토치아·인골소견의 경우

월성로발굴에서 출토된 치아는 3체분이며 그 중 13호분의 치아는 2체분이다. 여기서는 계측치와 교모도, 감정결과만 나타내고 있다. (金鍾悅 1990) 그런데 여기서 50대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 13호분 1호인골의 경우는 咬痕度 檢査에서 枡原博씨의 교모도 비교표를<sup>20)</sup>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에 따르면 가장 교모도가 큰 2°b도를 기준한다하더라도 그 연령이 대개 성년후반인 30~40세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50세로 추정된 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근거제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人骨所見에서는 주요 3봉합선의 內·外板이 모두 폐쇄를 완료한 것에서 60대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매자의 1990) 그러나 잔존하는 人骨에 대한 설명에서는 「冠狀縫合은 分離되어 있었으며」라고 한 것은<sup>21)</sup>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즉 冠狀縫合이 頭頂骨과 前頭骨이 이어지는 線인 점에서 그것의 개폐가 연령추정에 관계되는 이상, 이것이 分離되었다는 것은 開放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상은 지금까지 이미 보고된 人骨所見에 대해 의문되어지는 부분을 지적하여 보았다. 물론 이것은 문서화된 소견에 대한 의문인 만큼 내용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만을 지적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人骨所見들이 殉葬研究에 어떻게 관련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V. 殉葬研究에 대한 檢討

殉葬의 例인 고령 지산동44호분의 경우, 봉토의 내부에 타원형의 호석이 설치되고 그 중앙부에 3기의 대형석실이 위치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주변에 32기

18) 註14의 p. 333. 「(2) 8세경의 여아」 부분

19) 註14의 p. 331. 21호석곽

20) 枡原博 1957. 「日本人尙牙の咬痕に關する研究」 『熊本醫學會雜誌』 31-4.

21) 박매자의 1990. 「경주시월성로에서 발굴된 고인골에 대한 소견」 『慶州市月城路古墳群』 p. 447.

의 소형석곽이 배치된 多槨墓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3기의 석실과 32기의 석곽은 그 상단부가 동일 수평상에 있고, 봉토의 전체를 판축식기법으로 쌓은 것에서 이것을 追加葬에 의한 多槨墓가 아닌 同時葬에 의한 多槨墓로 보고 있다. 또한 주곽의 남동단벽에서는 인골편이 발견되어 이것을 墓主의 유골이 아닌 殉葬人骨으로 보았다. 그리고 主槨을 중심으로 배치된 소형석곽에서는 複數埋葬의 人骨이 확인되는 것에서, 이들을 殉葬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므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同時合葬과 석실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석곽배치, 석곽 피장자의 매장 의례가 지극히 홀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이 피순장자들이라고 보고 있다.<sup>22)</sup>

지산동45호분의 경우에서는 봉토가 판축식으로 되어있어 일시에 매장이 완료된 점, 주곽에서 무구류가 출토되는 것에 비해 부곽의 2호석실은 장신구의 토기류만이 출토되는 것에서 侍婢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2호석곽에서는 40대의 「건강한 남자유골」이 양호한 상태로 철기류와 함께 출토되고 있어 호위무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sup>23)</sup> 그리고 1호석곽에 대해서는 다른 석곽과는 달리 봉토 중에 설치되고 있어, 피장자는 家臣的 性格의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24)</sup>

그러나 지산동44호와 45호의 경우, 먼저 판축에 의한 一時封土로 판정한 것에 대해 물론 발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하더라도 Fig.1, Fig.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殉葬과 관련된 근거로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판축의 상태가 설득력있는 도면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보고자가 봉토단면상이 수평되적층만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sup>25)</sup> 오히려 45호분의 경우에서와 같이 최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있는 1호석곽의 경우는 봉토의 축조상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즉 봉토의 조성자체가 판축에 의한 작업이었던 이상, 합천삼가고분군의 경우에서도 追加右槨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있기 전의 단계에서는 분명 수평판축에 의한 봉토조성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여서,<sup>26)</sup> 보고자가 말하고 있는 「판축식기법의 봉토」<sup>27)</sup> 그것이 殉葬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역시 판축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의 제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22) 金鍾徹 1984, 「古墳에 나타나는 三國時代 殉葬樣相 가야·신라지역을 중심으로」, 『尹武炳 博士回甲紀念論叢』 p. 266.

23) 註22의 p267.에 대해 인골소견에서는 40대 남자로만 밝히고 있다.

24) 註22의 p. 267.

25) 高嶽郡 1979, 『大加御古墳發掘調査報告書』 p. 267.

26) 沈春謙 1982, 『陝川三嘉古墳群』.

27) 註22의 p. 266.



Fig1. 지산동44호분(高靈郡1979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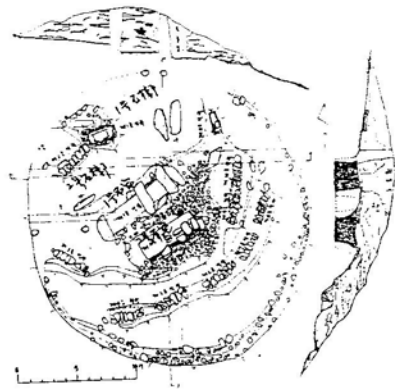


Fig2. 지산동45호분(高靈郡1979에서)

지산동44호분은 주곽을 중심으로 동시에 의도적으로 소형석곽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에서는 23호, 24호, 25호의 소형석곽은 그 배치에서 중복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약간의 의문을 남긴다. 그리고 45호분의 경우에는 1호석곽이 최후에 축조되면서 2호석곽의 일부와 겹쳐지고 있는 것은<sup>28)</sup> 의도적으로 배치된 다른 유구들과 비교할때, 이 1호석곽이 축조될 때는 선행의 2호석곽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에서 殉葬이 될 수 없다.

여기서는 오히려 지산동고분군의 사회가 44호분, 45호분에 대해 그보다 이르게 편년되고 있는 32호분이나 35호분의 경우에는 32호분의 호석밖에 위치하는 32NW-2호분과 34호분 연결석곽에서 小兒의 인골이 검출되고 있는 것에서<sup>29)</sup> 이른 단계에는 호석의 외부에 小兒의 소형석곽을 두는 것에서, 늦은 단계에는 호석내부에 小兒의 소형석곽을 두는 형태로 매장예가 변화되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그리고 하나의 봉토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중에서도 추암동B지구 가-42·43·44호분의 경우에 있어서<sup>30)</sup> 가-43호분에서 追葬에 의한 複數人

28) Fig.2를 참조

29) 金容五 1981, 「大加卯時代 古墳群에서 發掘된 齒牙에 依한 年齡 鑑定」 『高靈池山洞古墳群』 pp. 191~202.

30) 관동대학교박물관 1994, 「秋巖洞B地區古墳群發掘調査報告」 『東海北圻工團造成地域文化』

뼈이 확인되는 사실에서(Fig. 3), 이들 多槨墓에서 출토되는 複數人骨이 곧 殉葬을 의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소형석곽에서 複數埋葬이 확인되는 지산동44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小型石槨에서의 複數埋葬」이라는 사실보다는 인골의 상태가 양호한 것에서 이들 複數人骨이 同時埋葬인가, 異時埋葬인가하는 埋葬狀態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 소형석곽이 정말 殉葬에 의한 결과였다면 먼저 봉토의 상태에서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複數人骨이 출토되는 소형석곽에서의 매장인골에 대한 同時埋葬이 분명히 밝혀졌어야 할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埋葬事實에 대한 접근에서 이러한 작업들은 다소 소홀하게 다룬 상태에서 인골소견에서는 「나이어린 여아」라는 결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가 우려된다. 그리고 殉葬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후, 소형석곽에서도 출토되는 유물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과 성인남성과 소아가 함께 매장되어지는 예,<sup>31)</sup> 지산동45호분의 1호석곽에서처럼 이후에 유구가 추가되어지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해의 이른바 「多人墓」에 대하여서는 宋基豪가 殉葬墓로서 생각하고 있는 이들 유구들이 우선 同時性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橫穴式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氏는 家族葬이었을 경우 氏가 말하는 이른바 2차장의 人骨이 주인공인 주요인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려고 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이것은 주인공은 1차장이고 2차장의 인골은 殉葬이라는 고정편견에 의한 先入觀에 불과하다. 즉 이들이 家族墓이고<sup>33)</sup> 횡혈식 묘제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먼저 피장된 자가 인골로 된 상태에서 정리되어지고, 그 다음의 피장자가 매장되는 식의 매장방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피장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어지는 것이고, 앞서의 피장자는 어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도에서 먼 안쪽에서 부터 정리되어진 결과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것은 이미 인골출토상태에 대한 보고에서 증명되었다.<sup>34)</sup> 그러므로 氏가 同時性을 증명하기 위한 3가지의 논리

蹟發掘調査報告書 pp. 334~355. 여기서 인골은 가-42호분에서 성인남성1체, 가-43호분에서 성년후반남성1체, 성년여성1체, 가-44호분에서 불명1체가 확인되었다.

31) 이와같은 예는 金海禮安里77號墳에서도 보이고 있다.

32) 宋基豪 1984, 「발해의 多人葬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11, p. 40.

33) 여기서는 이들 複數埋葬의 가족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어서 순차적으로 하나의 묘에 함께 매장된 관계정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34) 金宰賢 記30의 pp. 431~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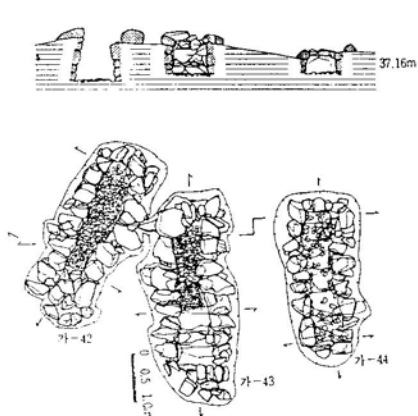


Fig.3. 추암동B-42·43·44호분 관동대(934에서)



Fig.4. 대주둔 1호분(考古1962-11에서)

전개는<sup>35)</sup> 성립될 수 없다. 더우기 1차장이 주인공이고 氏의 2차장이<sup>36)</sup> 殉葬者라면 殉葬을 하기 위해, 주인공이 피장되기 이전의 시기에 미리 殉葬對象者를 죽여 人骨의 상태로 만들어 두는 殉葬例도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대주둔1호의 경우에는(Fig. 4) 1호인골과 4호인골이 2호인골과 3호인골의 목관과 벽사에 끼여 있는 것에서 이들이 同時埋葬된 殉葬들로 생각하고 있다.<sup>37)</sup> 그러나 그것은 2호나 3호인골이 매장될 때 아직 1호나 4호인골이 완전히 부식되지 않아, 다른 인골들처럼 완전히 정리되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先後被葬者의 시기차가 짧은 追葬의 단계에서는 아직 관절의 인대가 일부 연결되어 있는 인골들의 경우, 次後被葬者를 위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그 일부만이 옮겨지는 예도 있다<sup>38)</sup>.

그러므로, 과연 이들이 한가족이라면 이런 식의 매장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sup>39)</sup>, 氏가 현시대적 관념에서 생각하는 주간적 감상일 뿐이다.

그리고 1차장으로 규정한 인골 중에는 뼈를 원래의 모습으로 「맞추어 매장하여」 1차장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에서는<sup>40)</sup> 소위 2차장 인골

35) 註32의 pp. 39~41.

36) 여기서 氏는 왜 인골을 2차장으로만 생각하여 외부로 부터 들어온 것으로만 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것을 묘실내부에서 정리되어진 인골로 보고싶다.

37) 註32의 p. 61.

38) 이와같은 예는 上ノ原27號橫穴墓의 1호인골 경우와 추암동B지구 가 31호 A인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9) 註 32의 p.40.

40) 註 32의 p.63.

들과의 同時性을 말하기 위한 억측에 불과하다. 그 자리에서 근육이 부식되어 인골로 된 상태와 뼈만 남은 상태의 인골을 본래 모습대로 맞추어 나열한 것은 그 출토상태부터가 다르므로 운운할 필요조차 없다.

朱容立의 경우에 있어서는 殉葬의 규정에 있어서 同時性·強制性이라는 조건을 설정하고는 있으나<sup>41)</sup> 그 同時性·強制性에 의한 고고학적 자료의 검토는 결여된 가운데<sup>42)</sup> 이제까지 殉葬墓로 말해져 오는 고고학적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상묘·누상·와룡천유적에 대한 비판은 權五榮의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 생략한다하더라도 김해에안리고분군에서 殉葬墓를 운운한 사실은 물론 氏의 논문이 완성한 단계에서는 氏도 인정하는 것처럼<sup>43)</sup>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판한 것이고<sup>44)</sup>, 횡혈식석실분에서의 殉葬墓 의견에 대한 피력에 대해서는<sup>45)</sup> 필자가 조사한 동해시 추암동 B지구 가31호분의 경우를 들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同時性·強制性·從屬性이라는 殉葬의 필요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의해 殉葬墓를 검토한 權五榮의 연구에서는 이른바 고조선의 묘제로 생각되어지는 강상묘·누상묘·와룡천무덤에 대한 검토가 있다<sup>47)</sup>.

그러나 이들 유구에 대한 殉葬事實의 의문 중 일부 내용은 지산동 44호분이 나 45호분에도 해당되는 것인만큼 왜 이들 고분의 殉葬事實에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즉 강상묘에서 묘광별 體積에 비해 인골의 개체수가 많은 점, 묘광들은 뚜껑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 등에서 追加葬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sup>48)</sup> 역시 지산동의 복수 매장석곽에 대한 동시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強制性的의 문제에서 거론되는 乳小兒의 埋葬도 마찬가지이다.<sup>49)</sup> 부장품의 문제에서도 殉葬者들의 부장품들이 한결

41) 朱容立 1988, 「한국고대의 순장연구」 『손보기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p.68.

42) 氏의 논문에서는 殉葬을 증명하기 위한 同時性·強制性에 대한 자료의 검토는 보이고 있지 않다.

43) 註 41의 p.80.

44) 註 17의 註 p. 364.에서는 順次的으로 追加葬을 행한 결과로 보았다.

45) 註 41의 p.79~80.

46) 金宰賢 ① 1994, 10. 「韓國東海市楸巖洞古墳群의 埋葬プロセス-B地區 KA-31號墳の場合」 『古文化談叢』 33, p. 206~208.

② 1994, 12. 「東海市楸巖洞B地區墳群의 埋葬例」 『石堂論叢』 20, p. 118.

47) 註 1의 ② p. 266~270.

48) 註 1의 ② p. 267.

49) 註 1의 ② p. 268. 지산동 44호분의 28호 석곽에서는 성인남자와 함께 小兒의 인골이 출토되고 있다.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경주월성로 가 13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이것이 적석목곽분이라는 점과<sup>50)</sup> 피장자의 수가 5인으로 추정되는 것에서 이 고분자체를 다른 고분에 대한 殉葬墓일 가능성을 생각하였다<sup>51)</sup>. 그러나 이것은 氏도 말한 것처럼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sup>52)</sup> 하나의 推論이 불과하다. 木槨墳에 대해서는 대개가 「殉葬槨」의 증거로서 사용하고 있으나<sup>53)</sup>, 木槨墳으로 대표되어지는 樂浪木槨墓는 追加葬을 위한 시설임을 전제한 연구가 있어<sup>54)</sup>, 木槨墳이 곧 殉葬墓임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경주월성로 가-13호분에서는 木槨의 동쪽부분과 남쪽부분에서 출토되는 고배의 형태가 다른 점에서(Fig. 5) 동해시추암동B지구 가-31호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김해예안리고분군에서는 女性으로 추정되는 석곽에서도 大刀를 부장하고 있는 것에서 大刀를 곧 男性과 관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55)</sup>.

경산임당동고분군에서는 이들 유구가 암반을 파고 조성된 竪穴式石槨墓라는 점에서 複數埋葬의 경우, 殉葬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임당동과 같이 암반을 파고 조성된, 竪穴式石槨墓인 대구옥수동 1-B-21호분의 경우는<sup>56)</sup> Fig. 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3인의 피장자중 2체분이 정리되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sup>57)</sup> 한국의 竪穴式墓制에서도 追加葬이 행하여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성탑리고분의 경우도 그것을 橫口式石槨으로 추정한 보고자의 의견에

50)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市月城路古墳群』 p. 142~170.

51) 權五榮 1992, 「고대영남지방의 殉葬」 『韓國古代史論叢』 4, p. 24. 그러나 여기서 가 13호분의 木槨 크기에 대한 추정이 300×165cm라는 점에서 이들이 예상되어지는 것처럼 장축으로 매장되었을 경우 5체의 피장자는 서로 상하로 겹쳐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그들이 정말 동시에 매장되었다면 왜 남북 단축으로 나란히 매장되지 않았는지 의문된다.

52) 氏는 「유적전체가 도로변에 국한한 좁은 범위에 걸쳐 조사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다.

53) 이와 같은 예는 申敬澈 1992, 「金海禮安里 160號墳에 대하여-古墳의 發生과 關連하여-」 『加那考古學論叢』 1, 에서도 보인다.

54) 高久健, 1994, 「樂浪墳墓里葬土器部에 대한 研究-樂浪社會構造의 解明-」 『考古歷史學志』 10.

55) 이에 대해서는 武末純, 1992, 「韓國禮安里古墳群의 階層構造」 『古文化談叢』 28이 있다.

56) 嶺南大學校博物館 1994, 「대구시지택지개발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 중간결과보고서 3」 p. 75~109.

57) 註55의 p. 107에서는 「追加葬의 가능성이 큰데」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필자의 실견으로도 일부 정리되어진 인골과 함께 3체이상의 複數埋葬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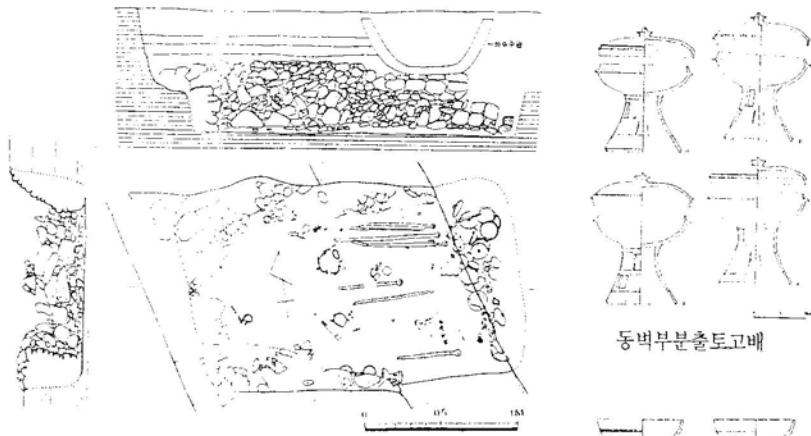


Fig 5. 경주원성로가 13호분(慶州博1990에서改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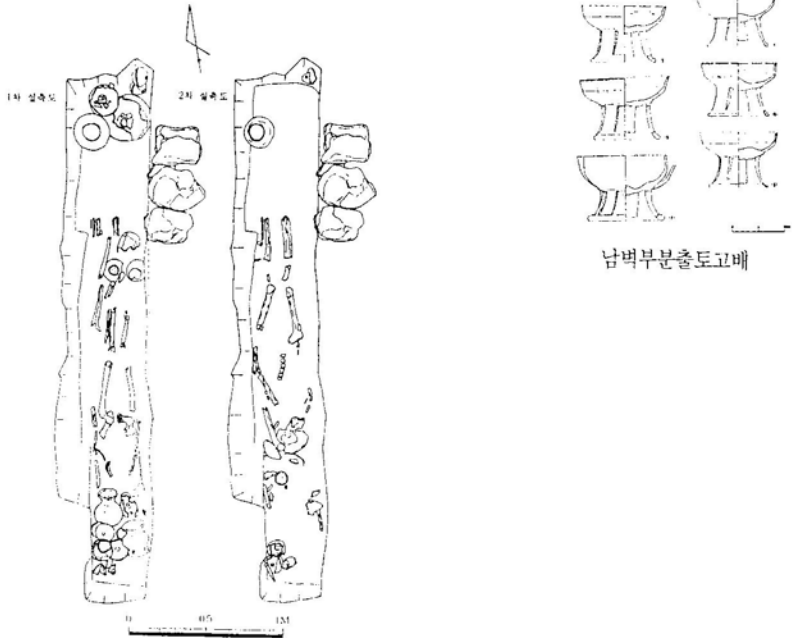


Fig 6. 대구옥수동 1 B·21호분(嶺南大1994에서)

서<sup>58)</sup> 追加葬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호분의 경우에는 「고배군에 깔린 골편」이라는 내용에서<sup>59)</sup> 殉葬이기보다는 이들 골편이 추암동B지구나-6

58) 金棧元 1962. 『義城塔里古墳』, p. 25~26.

59) 註57의 p. 52. 추암동B지구 나-6호분 인골출토상황에서도 A, B, D호인골은 토기들과 함께 정리되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호분과 비슷한 상태로 정리되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함안말이산·도항리고분군에서는 豎穴系橫口式石室墳인 34호분이나<sup>60)</sup>, 豎穴式石槨墓에서<sup>61)</sup> 殉葬의 가능성이나, 殉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묘제가 龕室을 가지고 있어, 만약 이 龕室이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이라고 한다면<sup>62)</sup> 고구려·백제의 묘제가 橫穴式인 점과 이 橫穴式墓에 조명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龕室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흥읍내리벽화고분의 경우에 있어서는<sup>63)</sup> 이 고분의 벽화와 함께 쓰여져 있는 「己未」라는 기록에서 그 벽화의 조성연대를 479년, 539년, 599년의 어느 시기와 관련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검출된 人骨이 複數인 것에서 殉葬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신라가 殉葬을 금지한 502년보다 이른시기인 479년을 벽화고분이 조성된 근거로 삼으려하고 있다<sup>64)</sup>. 그러나 벽화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소견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선행논문에서 지적된 것이므로<sup>65)</sup> 생략하더라도 그것을 殉葬으로 보아, 그 殉葬事實이 연대설정에 근거가 되어지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 V. 結 論

이상은 殉葬의 例로써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고학 자료에서 의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것은 序論에서도 이미 밝힌 것처럼 현재의 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의문점만을 지적한 것이어서, 전체 殉葬資料에 대한 檢討나 疑問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점은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되어진 자료들에 대한 의문은 그것이 단지 殉葬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론되었다기 보다는 殉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설득력있는 작업과 근거가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에 殉葬이 정말 있었는가·아니면 없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지금의 현황에서는 유보하고자 한다.

60) 朝鮮總督府 1920,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6年度)』

61) 呂原文化財研究所 1994, 『咸安道項里古墳群發掘調査(第3次年度)會議資料』

62) 「龕室」에 대해서 李柱憲은 1996년 7월 28일 제2회 嶺南·九州司考古學大會의 발표에서 백제나 고구려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를 언급하였다.

63) 文化財管理局 1986, 『順興邑內埋藏古墳』

64) 註63의 p. 161~162.

65) 註46의 ① p. 217~219.

② p. 131~132.

殉葬을 증명하기 위한 선학자들의 필요조건 설정은 주요한 것인 만큼,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의 檢討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檢討는 이후 발굴되는 遺蹟이나 人骨의 調査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더우기 人骨에 있어서는 人骨 그 자체의 분석 외에도, 출토상태가 가지고 있는 考古學的 情報도 관찰되어서 고고학자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김해예안리고분군에 대한 연구는<sup>66)</sup> 중요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끝으로 文中에서 선학들에 대해 무례한 어구가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점에 대해서 관용을 바라는 바이다.

(文中敬稱略)

## 謝 辭

본 졸고를 위해 지면을 허락해 주신 심봉근선생님과 정효운선생님, 박광춘선생님에게 감사드리며, 대구옥수동출토인골의 견학을 허락하고 보고서를 보내주신 양도현선생님, 김수남선생님, 정상수선생님, 황남대총의 자료를 보내준 이은석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본고의 작성과정에서 조언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田中良之선생님, 溝口孝司선생님, 中橋孝博선생님, 村上久和씨, 高久健二씨, 石井博司씨, 최종혁씨, 基層構造講座研究室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1996년 9월 13일 완료)

A Re-examination of the Studies in Sacrificial Burials of Korean Mounded-Tomb Period - Kim, Jaehyun

66) 田中良之 1996, 「埋葬人骨에 의한 日韓古墳時代의 比較」 『4·5세기 환일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재2회합동고고학대회.

여기서 김해예안리고분군의 조성과 관련된 친족구조의 연구에서 고분군의 축조와 관련된 사회는 양계적사회로 그 계열은 혈연친족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한 인물이 그 세대에 선택되어 매장되어지며, 그 매장의 단위는 부부가 매장의 단위가 되지 않는, 또한 주술적·의례적측면이 중시되는 사회로 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金載元 1962, 『義城塔里古墳』
-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 金貞培 1969, 「中·日에 비해 본 韓國의 殉葬」 『白山學報』 6.
- 張信堯·金達澤 1976, 「慶州第98號古墳南墳에서 出土한 古人骨에 관한 研究」 『文化財』 10, 文化財管理局.
- 朱剛 1979, 「池山洞44號, 45號古墳 出土人骨에 대한 所見」 『大加鄜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 高靈郡 1979, 『大加鄜古墳發掘調査報告書』
- 金容五 1981, 「大加鄜時代 古墳群에서 發掘된 齒牙에 의한 年齡 鑑定」 『高靈池山洞古墳群』
- 沈奉謹 1982, 「陝川三嘉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鐘微 1984, 「古墳에 나타나는 三國時代 殉葬樣相-가야·신라지역을 중심으로」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 宋基豪 1984, 「발해의 多人葬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11.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金海禮安里古墳群Ⅰ』
- \_\_\_\_\_ 1993, 『金海禮安里古墳群Ⅱ』
- 문화재관리국 1986, 『順興邑內里壁畫古墳』
- 朱容立 1988, 「한국고대의 순장연구」 『손보기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 金鐘悅 1990, 「월성로출토치아 및 인골감정서」 『慶州市月城路古墳群』
- 박매자의 1990, 「경주시월성로에서 발굴된 고인골에 대한 소견」 『慶州市月城路古墳群』
-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市月城路古墳群』
- 權五榮 1991, 「崗上墓殉葬制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회』 21.
- \_\_\_\_\_ 1992, 「고대영남지방의 殉葬」 『韓國古代史論叢』 4.
- \_\_\_\_\_ 1993, 「강상묘와 고조선사회」 『考古歷史學志』 9.
- 관동대학교박물관 1994, 「秋巖洞B地區古墳群發掘調査報告」 『東海北坪工團造成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 金宰賢 1994, 10, 「韓國東海市秋巖洞古墳群의 埋葬プロセス-B地區KA-31號墳の場合」 『古文化談叢』 33.
- \_\_\_\_\_ 1994, 12, 「東海市秋巖洞B地區古墳群의 埋葬例」 『石堂論叢』 20.

- 高久健二 1994, 「樂浪墳墓埋葬主體部에 대한 研究—樂浪社會構造의 解明—」  
『考古歷史學志』 10.
- \_\_\_\_\_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 嶺南大學校博物館 1991, 『慶山林堂地域古墳群 I』
- \_\_\_\_\_ 1994, 『대구시지택지개발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 중간결과보  
고서3』
-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1996, 『4·5세기 한일고고학』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2회합동고고학대회.
- 柄原博 1957, 「日本人齒牙の咬耗に關する研究」 『熊本醫學會雜誌』 31-4
- 小片重男外 1961, 「日本人頭蓋縫合の變化年令との關係」 『日本法醫學雜誌』 15-  
5, 6.
- 小片保 1973, 「人骨の研究法」 『考古學ジャーナル』 4.
- 池田次郎 1975, 「高松塚被葬者の推定年齡について—島鑑定と梅原說の檢討—」  
『季刊人類學』 6-1.
- 黒田直 1976, 11, 「頭蓋冠縫合融合度と年齡」 『科學警察研究報告書』 29-4
- 西方一郎外 1988, 『現代人の法醫學』
- 大分縣教育委員會 1989, 『上ノ原横口墓群 I』
- \_\_\_\_\_ 1991, 『上ノ原横口墓群 II』
- 武末純一 1992, 「韓國禮安里古墳群の階層構造」 『古文化談叢』 28.
- 田中良之 1995, 『古墳時代親族構造の研究：人骨が語る古代社會』
- D.R. Brothwell. 1963, 『Digging up Bones』
- DOUGLAS H. UBELAKER 1984, 『Human Skeletal Remains』
- WILLAM M. Bass 1987, 『Human Osteology』
- MEHMET.Y.I. 1989, 『AGE MARKERS IN THE HUMAN SKELETON』
- \_\_\_\_\_ 1989, 『Reconstruction of Life from the Skeleton』
- Tim D. White 1991, 『Human Osteology』